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571 호 현대불교
2026년 3월 25일(음 2월 7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불법의 진의를 생활 속에서 꿰뚫어서 알고 맛을 보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지금 여러분은 천차만별로…, 애들은 애들대로 점점 가을이 다가올 겁니다.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가는 것이 위로는 푸른 잎을 쳐다보고 아래로는 가랑잎을 밟으면서 우린 지금 걷고 있다 이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공양을 하시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평발이기 때문입니다, 평발! 발이 납작해서 평발이라고 한 게 아니라 어느 거 하나 빼놓지 않고 전체를 한 발로 디뎠기 때문에 평발이다 이 소립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무슨 죄가 있으니까 기도 드려라, 또 업이 많으니까 뭐가 안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3일, 1주일, 100일 기도를 드려라. 정성을 들여라, 얼마를 가져와서 천도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해 준다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알았다"라는 말대답 한마디로 족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되 그것은 당신들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 까닭에 그런 말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그런 의식 자체를 다 놔 버리고 즉결로 들어가서 즉행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목마를 때 즉시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물컵이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집어 들고 마셔서 진짜 맛을 봐라. 그러면 쓴지 단지 알 수가 있다. 쓰고 달고를 알아야 내가 마음을 내서 움죽거릴 수가 있다 이거죠. 만약에 맛을 모르고 움죽거린다면 그냥 헛바퀴 돌아가는 거다 이거죠.

맷돌에 물건도 넣지 않고서 맷돌질을 한다면 그냥 빈 맷돌만 돌아서 아무 소용이 없죠? 또 축이 없어도 안 돌아가고요. 그러니 우리가 불법의 진의를 생활 속에서 꿰뚫어서 알고 맛을 보세요. 안 되는 일도 되는 일이고 되는 일도 되는 일입니다. 진짜로 믿으신다면, 진짜로 맛을 아시는 분은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여기에도 맛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맛을 보셨다면 우리가 말로 설법…, 설법이라는 이름조차도 붙이지 맙시다. 이 말 자체가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여러분과 같이 마음을 함께하면서 그 에너지가 오고 가는 사이 없이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그 두터운 한마음, 그게 자비거든요. 자비라는 건 애정이나 사랑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든 없든 못났든 잘났든, 거지든 부자든 병자든 병자가 아니든, 또 벌레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소든 말이든 개든 이런 걸 따지지 않는 게 자비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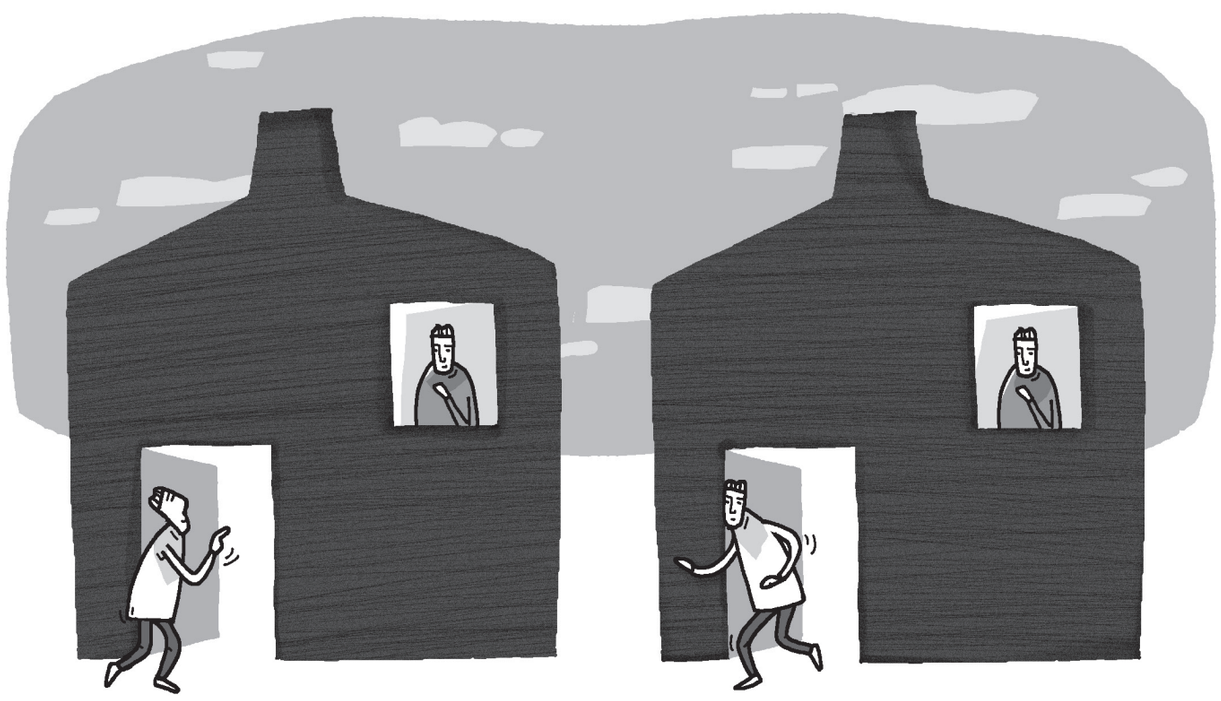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예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어요. 이것은 강원도 어디에서 실제 있었던 얘깁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서 살았습니다. 부처님한테 다니긴 해도 그 뜻은 잘 모르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이 자주 나가시진 않으셔도 불도를 숭상하시면서 마음으로 연구를 잘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얘야! 궁합은 봐 뭘 하니? 저희들끼리 좋다면 결혼시켜라. 서로 봐서 합의한다면 그게 궁합이니라.", "얘야! 이사를 하되 일요일같이 사람들이 많은 날, 비 안 오는 날 이런 날 하면 그것이 바로 좋은 날, 부처님이 돌보시는 날이란다." 이렇게 아주 유하게 가르치시던 분이 고만 아들을 앞세우고 말았어요. 그러니 고만고만한 손자들하며 며느리하고 살다 보니까, 좀 살긴 했지만 농사를 짓는데 도저히 며느리 혼자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고 얼마 안 가서 고만 그 시아버지마저 가셨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허망하니 어떠니 하기 이전에, 올망졸망한 오 남매를 두고서 두 분이 다 가셨으니 나는 어떻게 살라느냐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말입니다, 죽을 때에 '내가 이렇게 가서 그 농사일을, 애들 기르는 걸 돌봐 주지 못해서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하시고서 '결국은 너희 집의 소로 와야 내가 너희 집의 일을 도와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소가 새끼를 낳는데 시아버지가 소에게 뛰어들어서 다시 태어난 거죠. 그건 알고 뛰어들었으니까 누구의 길을 인도받고 안 받고가 없어요. 그래 소에게 뛰어들었으니까 소로 그려 가지고 나왔겠죠? 그분은 붓대를 쥐어도 아주 뛰어난 화공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유스럽게 소가 되려면 소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 마음이 염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바깥으로 끄달리면서 바깥으로 '나 좀 그렇게 해 주시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부처님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성신한테다가 '야! 젊은 며느리 혼자 저 손자들을 기르고 살아나가는데 어찌하겠나. 야! 주인공, 내가 소로 그려 가지고 나와야겠어. 그래서 일을 봐 줘야겠어. 그리고 쟤네들 다 자라면 내가 또다시 원점으로 가지.' 그렇게 안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소로 태어나서 점점점점 잘 자라요. 그래서 중소로 딱 자라니까, 이 며느리가 큰 소까지 둘 수는 없거든요. 큰 소를 갖다 파니까 그 시아버지 송아지가 중소가 되어서도, 어머니 소가 가니까 참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거든요. 내가 소 허물을 쓰고 나와서 소가 됐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어머니요, 그리운 건 그리운 거요, 보고 싶은 건 보고 싶은 거요, 또 과거 생의 어머니, 인연 되어 모여 살던 전생의 어머니도 그때는 그때대로 또 어머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닌 게 없죠.

그래서 이 소가 눈물을 주루룩 흘리면서 사는데, 점점 자라나는 애들이 집 안을 오고 가는 것을 봐도 그 소는 눈물이 주루룩 흐르는 거라. 결국은 손자들이죠. 며느리가 들어와서 소죽을 쑤어서 퍼서 주어도, 그 소죽을 얼른 덤벼서 먹으려고 안 하고 며느리를 그 큰 눈으로, 속눈썹이 기다란 그 큰 눈으로 말이죠, 꿈벅꿈벅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며느리가 오고 가는 것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아휴, 빨리 먹으라고 며느리가 그러면 그때서야 딴전 피우고 있다가 먹는 것처럼 먹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애들이 끌고 갈 때는 그저 자기 며느리 태우려고 네 무릎을 땅에 착 대고서 흔드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 위하는 마음과 그 아픔을 어디다 다 말을 하겠소. 여북하면 소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겠소.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수없이 하면서 나날을 지내다 보니까, 애들은 다 자라서 서울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됐고 지금은 교수로다가 지내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